

2018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인문기초학문 분야)

〔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es)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연구아젠다】

연구목표

본 사업단의 아젠다는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es)> 이다. 본 사업단은 개항 이후 외래문명의 수용이 한국의 근대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문명의 수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 활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근대적 전환공간은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 장소이자 환경이며 상황이다.

본 사업단은 전환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국의 근대가 경험해왔고, 앞으로 경험할 변화, 변신, 변모의 양상을 논구해 봄으로써 인문학의 기본정신인 통합적 사유의 전형을 밝혀보고자 한다. 메타모포시스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또한 방법이기도 하다. 본 사업단은 한국의 근대를 근대적 전환공간에서 획득한 혹은 이룩한 다양한 결과들을 메타모포시스라는 개념으로 수렴한다.

한국에서는 근대성의 성취 혹은 획득의 방법론적 관점에 따라, 근대의 성격이 자생적 근대, 식민지 근대라고 정의되는 두 가지의 첨예한 논쟁구조를 갖는다. 근대성에 관한 논쟁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며,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생산적 토론을 활성화하여 한국의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한국사회의 인문사회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그러나 근대화 논쟁을 다룬 여러 분과학문분야에서는 근대화 논쟁의 본질을 사회구성체적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그 논쟁의 본질적 물음인 존재와 시간의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근대화라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근대가 도입되는 현상 그 자체는 맞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착종된 ‘근대’를 오도하는 데 따르는 현상이다. 즉, 근대화 논쟁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의 설명방식은 외래의 시각에 매몰되어 한국의 근대를 극히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본 사업단은 전술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적 전환공간에서 발생하고 성장하여 향유되어 온 메타모포시스를 통합적 인문학의 토대와 발상에서 새롭게 발견, 해석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은 한국의 근대를 정지된 일회적 사건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p>따라서 이러한 이해방식으로서 우리는 변화와 소통의 인문학을 제시하며 변화와 소통의 인문학을 한국의 근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한다.</p> <p>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es)> 는 변화와 소통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할 때에 그 적실성을 획득한다. 다시 말하면, 변화와 소통이라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근대적 전환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문명을 받아들여 변용되었고 확산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우리의 문명사적 이해를 입증하는 것이다.</p>
<p>연구요약</p>	<p>본 사업단은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es)> 라는 아젠다를 문학과 예술, 사유와 사상, 기억과 기록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p> <p>본 사업단은 전환기(근대) 한국에 들어온 외래문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어떻게 변용 또는 활용되었는지를 조사, 연구, 분석, 검토하여 한국의 근대적 전환의 과정과 성격, 그 의미를 조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본 사업단은 연구의 내용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본 사업단은 총 2단계 7년을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3개 팀으로 운영한다.</p> <p>1. 문학과 예술팀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학과 예술의 수용, 변용, 확산 또는 내면화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한다.</p> <p>1차년도에서는 19세기 개항 이후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한국문학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 변화, 대립, 충돌의 양상을 연구한다. 또한, 타자(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당대 한국인의 관습, 태도(불안, 거부, 이질감) 등에 대해 서술한 문학작품을 연구한다.</p> <p>2차년도에서는 외래적인 것이 한국문학에 내면화되는 과정에서의 수용과 변용, 축적, 취사선택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잡지, 신문 등 매체에 소개된 소설, 시를 중심으로 환류되는 매체 간의 혹은 문화, 정치, 사상과 문학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특히 평양에서 간행된 잡지 등을 분석하여 초창기 잡지에 반영된 외래문물의 수용과 변형의 과정을 연구한다.</p> <p>3차년도에서는 근대 전환공간에서 내면화된 한국문학의 성과가 유통, 소비되는 양상을 추적 검토하여 메타모포시스 인문학적 요소를 밝혀내고자 한다. 한국문학이 근대기에 유통된 외래적인 매체(유성기 등)와 소통하는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p>

2. **사유와 사상팀**에서는 한국의 근대적 전환에 영향을 미쳤던 외래문명의 수용과 변용, 활용, 확산을 ‘변통의 인문학’이라는 인식틀을 통하여 검토한다.

먼저 1차년도에서는 외래사상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문명의 수용이 가져온 다기한 갈등, 충돌, 대립, 분열, 혼란의 양상을 연구할 것이다. 예컨대 세계관의 충돌, 갈등, 시선의 차이 등에 대해 당대의 문헌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연구사적으로 검토한다.

2차년도에서는 외래사상이 한국적으로 수용되는 양상 또는 변용되는 양상에 대하여 연구한다. 예컨대 서양철학이 한국에 소개되어 한국의 지식계에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어떠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이 한국의 철학사상, 지식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3차년도에서는 외래 사상과 철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하였으며, 내면화되어 우리의 정신세계와 일상세계에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계로 확산(Reglobalization)’되는지, 그 과정과 내용 그리고 양상을 밝혀볼 것이다.

3. **기억과 기록팀**에서는 문명의 수용과 변용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 화해와 소통의 양상을 분석하고 재해석한다.

먼저 1차년도에서는 개항 이후 외래문물과 이방인이 내도하며 당대의 한국사회가 겪었을 불편함, 불안감, 당혹감, 거부감, 이질감, 이물감을 기억과 기록을 통하여 밝혀볼 것이다.

2차년도에서는 외래적인 것의 수용 및 변용의 양상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수용과 변용의 양상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함께 볼 것이다. 특히 외부에서 수용된 학문적 방법론이 식민지 시대에 학문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다.

3차년도에서는 기억과 기록의 유산들이 대중에게 확산되고 향유하는 과정과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 단계는 그간의 인문학이 강단인문학 혹은 교과서인문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대중 속으로 스며드는 환류 과정으로써 인문학의 대중화, 일상화, 보편화를 추구한다.

기대효과

본 사업단은 위와 같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크게 학문적 기대효과, 사회적 기대효과, 교육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학문적 기대효과로는 한국의 근대적 전환이 외래문명과의 끊임

임없는 접변과 변용 속에서 형성되고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과 예술, 사유와 사상, 기억과 기록의 영역에서 기존에 연구되던 전통적인 방법론을 탈피하여 통합적, 통섭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고 분과학문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연구의 전범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의 인문학적 연구 방법론이 성취하기 어려운 복합적, 중층적 방법론이다.

본 사업단이 기대하는 두 번째 효과는 본 아젠다의 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이다. 즉, 인문학의 사회적 기대효과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문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형식과 내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인문학이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다. 인문학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해결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들, 파악된 문제들, 세상과 대면하게 된 문제들은 지속적인 성찰과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게 된다. 본 사업단은 이와 같은 인문학의 특성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업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여방식이다.

본 사업단은 이 연구를 통하여 인문학을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관찰하는 방법론의 개발에 일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예를 들어 인문학적 교육방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플라톤적 방식’ 또는 ‘아카데미아 방식’으로 불리는 통합적 인문학 교육방법론으로서 하나의 주제를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강의, 토론, 설명하는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수의 강의자 혹은 연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자유롭게 토론한다.

이 토론자들의 뒤편에는 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는다. 학생들은 토론자의 토론을 경청하며 수시로 강연자에게 질문을 한다. 강연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자신의 대답이 부족할 경우 공동의 강연자가 그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는 형식의 강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방법론은 최근 시도된 혁신적인 여러 교육방식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는 교과개편 및 강의시간표의 조정, 강의실 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본 사업단의 이러한 교육적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지역인문학센터】

<p style="text-align: center;">센터운영 목표 및 계획</p>	<p>지역인문학센터 운영은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관련하여 ‘다가가는 인문학 / 찾아오는 인문학’이라는 기치 아래에 지역 인문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인문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초중등 인문소양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교육 및 소외계층 대상의 인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인문학센터는 인문학 교육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고, 송실대학교 평생학습센터와 협력하여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우수한 인문학 콘텐츠 및 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 지원할 것이다.</p> <p>주요 추진 목표로는 지역인문학센터와 대학,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인문학적 특성을 반영한 인문학 교육 개발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사업의 기초가 마련되면 인문학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인문교육 길잡이’를 제작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초중고 및 지역인문학센터에 ‘인문교육 길잡이’를 배포할 것이다.</p> <p>또한 본 사업단 이외에도 지역인문학센터로 지정된 타교의 연구소와 교류를 통해 지역인문학센터의 사업성과가 충분하게 활용되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인문튜터(Tutor)’를 배출하고자 한다. ‘인문튜터(Tutor)’는 지역인문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장년·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를 ‘인문튜터(Tutor)’로 지도하여 지역인문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p> <p>이밖에도 소외계층에게는 사회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강좌를 추진할 것인데, 특히 교도소 수감자 및 군부대 등 인문학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인문토크’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인문학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센터활동 주요 프로그램 계획 연구요약</p>	<p>1차년도 사업은 아젠다 연구의 시작 단계로서 지역인문학센터 개설을 준비하는 출발기이다. 따라서 향후 원활한 인문교육을 위한 지역인문학센터의 ‘인문학 길잡이’ 제작을 위한 토대 마련과, 본 센터가 계획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본 센터의 인력은 전담 행정직원 1명과 연구보조원 3명(총4명)으로 구성된다. 각 직원들</p>

	<p>은 유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문학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력자를 중심으로 우선 선발할 것이다.</p> <p>1차년도에는 각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길잡이를 바탕으로, 본 센터의 독자적인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본 센터의 특성화프로그램인 ‘인문 토크’ 및 ‘인문학 아카데미’는 장·단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본 센터는 사업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통합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통합인문학적 교육체계를 정착시킬 것이다. 1차년도에는 각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기반으로 지역인문학교육의 토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p> <p>2차년도에는 교내외의 다양한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인문교육을 수행할 것이다. 본 센터가 표명하는 지역인문교육은 ‘다가가는 인문학 / 찾아오는 인문학’이다. 따라서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인문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시도된다. 지역인문학센터의 본격적인 인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된 연속적인 인문학 교육의 틀을 정립할 것이다. 특히 사당종합사회복지관과 문경에 소재한 송실리더십연수원 및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등이 주요 협력기관이 될 것이다.</p> <p>3차년도에는 지역인문학센터의 본격화 2단계로서 본격적인 지역인문학교육의 진행을 연속적으로 실행하여, 그 결실을 창출할 것이다.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통합인문학은 본 사업단이 추진하는 지역인문학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초중고 교사 및 인문교육에 관심을 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문튜터(Tutor)’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인문학교육을 실천할 인력을 다수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3차년도의 지역인문학과의 연계활동은 2단계 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첫 결실이 집중적으로 산출되는 해가 될 것이다.</p>
<p>센터 활동 지역(地域) 범위</p>	<p>지역인문학센터의 활동 지역은 송실대학교 교내 연구기관과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동작구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기관(‘청포도’) 과 인문학 소외지역인 소망 교도소(여주), 문경시를 주된 활동 지역으로 삼는다.</p>
<p>협력기관과 협력계획</p>	<p>본 사업단은 본교 산하 교육기관은 물론 송실대학교 근처의 지역</p>

사회 및 동작구 사회복지관, 초중고 인문소양교육센터, 송실통일리더십연수원, 여주시 소망 교도소 등의 협력기관에 본 사업단의 아젠다인 통합적 인문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관들과의 인문학 콘텐츠 공유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초중고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중장년층을 포괄하며 지역주민과 더불어 국가 인문학사업이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미래지향적 복지 정책과 본 사업단의 아젠다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2) 인문과학연구소는 송실대학교의 기초연구소로서 인문학 연구를 장려하고 문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문학 분야에 관한 연구와 발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다. 본 사업단은 인문학의 지평과 저변의 확대라는 취지 아래 인문과학연구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3) 송실통일리더십연수원은 송실대학교가 문경시와 협력하여 세운 기관으로서 문경시의 인문교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사업단은 문경시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문학 교육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간 교도소로, 2010년 12월에 개소하였다. 수형자의 내적변화를 위하여 직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멘토가 협력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 사회와 화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출소 후에는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은 소외계층의 인문교육을 통해 교정·교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향후 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5) 문경에 소재한 국군체육부대는 송실통일리더십연수원과 협약을 맺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는 국군체육부대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인문 토크를 열어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전문적인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6) 청소년 인문학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포도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의와 인문캠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포

	<p>도는 인문토론과 진로교육을 병행하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본 사업단은 청포도와 협력하여 보다 혁신적인 인문강좌를 개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인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p> <p>(7) 한국기독교박물관은 박물관 사료를 토대로 하여 인문학강좌를 열고 인문토크 및 인문강좌를 운영할 것이다.</p> <p>(8) 새세대고령화연구소의 부설기관인 인생대학은 인구 고령화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해법과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본 센터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p>
<p>기대효과</p>	<p>본 사업단은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본 센터는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인성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것이다.</p> <p>본 사업단의 특징인 ‘인문토크’와 ‘인문학 아카데미’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은 물론 지방과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전인교육, 평생교육, 시민교육의 가치를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인문교육 ‘길잡이’ 제작은 본 사업단의 결과물로 산출되어 향후 지역인문학교육의 활동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초중등 인문소양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인문튜터(Tutor)’ 양성 프로그램은 기초인문교육 및 ‘인문토크’,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단의 지역인문학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인문교육의 체계적, 연속적 교육이 ‘인문튜터(Tutor)’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본 사업단의 지역인문학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인문학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